

이슈브리프

No. 2025-31

트럼프 2기 신중동 전략과 중동 안보구도의 재편

장지향

수석연구위원

2025-09-29

2025년 5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의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하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까지 방문해 투자 협정과 무기 판매에서 대규모 성과를 거두었다. 사우디아라비아 6천억 달러, 카타르 1조 2천억 달러, UAE 1조 4천억 달러 등 독보적 규모의 투자금이 포함된 경제-기술-안보 메가 딜이 연달아 발표됐다. 트럼프 정부의 거래식 외교 기조하에서 이들 걸프 산유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도 거액의 투자를 약속해 이미 돈독했던 걸프 왕실과 트럼프 일가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그런데 걸프 오일 머니를 유치하며 '미국 경제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쟁 종식을 주장하던 트럼프 2기 정부는 6월에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사상 초유의 이란 핵시설 타격을 전격 결정해 직접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걸프 밀착과 이란 공세 병행 전략은 이란과 시아파 진영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스라엘과 걸프 산유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동 질서를 부상시켰다. 한편

중국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막강한 하드 파워를 투사한 미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그동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자국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며 개혁 성과, 안보 보장, 역내 위상 강화를 추구해온 걸프 산유국은 앞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안보 제공자인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세 앞에서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후 엘리트 내분과 민심 이반, 시아파 리더로서의 권위 추락까지 겹치면서 1979년 이슬람공화국 수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프록시 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란은 '권위주의의 축'인 중국·러시아·북한과의 반미 연대에 기대고 있으나 핵 합의 위반에 따른 유엔 제재까지 복원되면서 이러한 전략적 한계는 심화할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의 무력 질주와 가자지구 재점령 계획은 이란의 약화로 부상한 신중동 질서를 흔들 수 있다. 9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과 사우디아라비아·프랑스 주도의 유엔 회의에서 확인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압도적 찬성은 트럼프 2기 중동 전략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론을 의식한 걸프국은 새로운 질서 편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이스라엘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외교적 성과를 노린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에게 종전과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걸프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안보 구도가 점차 정착되어 갈 것이다.

트럼프 2기의 중동 구상: 걸프 밀착·이란 군사공세의 병행 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걸프 '비즈니스' 순방과 경제-기술 안보 메가 패키지

트럼프 2기 정부는 전 세계는 물론 중동에서도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하며 자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무역 적자 해소, 에너지 패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두 번째 임기의 첫 해외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를 방문해

막대한 오일 머니를 유지하고 이를 자국의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을 댄 걸프국 세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 제공과 AI 협력 등을 약속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자본의 미국 내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추진을 약속했고 미 상무부는 걸프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 시절 제정된 첨단 반도체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¹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국 간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안보 협력 강화를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틀 뒤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Mohamme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향후 4년간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발표는 실제 집행 여부를 떠나 전략적이고 빠른 정치적 승부수였다. 두 나라의 협정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1천억 달러 투자,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1천 4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 판매 장기 계약과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 미국은 카타르와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에는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210대를 구매하는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포함됐으며, 이는 보잉사 역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카타르는 미국 방산·보안 기업에 2천 4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UAE에서 양국은 향후 10년간 UAE가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역시 올 3월 타누 빈 자예드(Tahnoun bin Zayed)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방문 중에 이미 발표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UAE는 미국과 AI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UAE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UAE는 미국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2035년까지 기존 700억 달러에서 4천 400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전례 없는 이란 핵시설 타격

2025년 5월 트럼프 2기 정부의 걸프 산유국 초밀착 행보가 주목받으면서 이스라엘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와 '이스라엘 패싱'설이 제기됐다.² 무엇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이란과 새로운 핵 협상에 나서 5차례에 걸쳐 외교적 해법을 타진했다. 1기와 달리 2기에는 기존의 압박과 더불어 대화를 병행하고 이란의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의 외교 채널 가동에 이스라엘은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 발 공격이 누그러질 가능성을 기대하며 외교적 접근을 옹호했다.³

하지만 미국의 이스라엘 패싱설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례 없는 수준의 선제공격을 감행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 군 수뇌부와 핵무기 개발 과학자 그룹을 타격하자 미국은 고강도 공습을 지원해 역내 패권국 이란을 무력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이 파괴할 수 있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초대형 벙커버스터와 B-2 스텔스 폭격기로 완전히 제거했으며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과 중동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전을 확보할 필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농축 활동 전면 포기를 요구하자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농축 권리는 주권이라며 강경하게 맞서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급격히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이 대이란 선제공격 의사를 내비치자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란에 압박감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는 이란 핵시설의 약 20%만을 파괴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미국에 후속 타격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결국 미국은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통해 이란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하는 고강도 공습을 감행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중동의 무력 충돌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건 바로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선제 작전이었다. 이스라엘이 먼저 방공망과 정보·지휘 체계를

상당 부분 무력화한 덕분에 미국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면서도 군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동시에 수니파 걸프 산유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시아파 맹주 이란의 군사 모험주의를 억제하려는 전략적 계산도 작용했다. 미국의 공습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최고 2년까지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⁴

미국의 직접 개입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적 해결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이란 강경파 집권층을 상대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해 최대 압박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이틀 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를 전하며 다시금 세계를 놀라게 했다.

걸프 산유국의 대미 손익계산서: 개혁 성공, 안보 보장, 위상 강화

현재 걸프 산유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보수적 이슬람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재정 불안정성과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첨단 산업 육성, 청년·여성 인재 등용, 사회 구조 개혁 등을 병행해온 것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AI와 혁신 기술, 방산, 민간 핵프로그램 분야 발전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투구해왔다.

이를 위해 걸프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이스라엘-이란 대립이라는 복잡한 역내 갈등 구도 속에서 자국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셈법을 구사해왔다.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대외 전략의 핵심축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탈중동 기조에 대비해 외교 다변화를 천명하며 아시아 지향 정책으로 노선을 확장했다. 더구나 세일 혁명에 성공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걸프 산유국에 있어 독보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으로 압박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걸프 정부들의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걸프국은 디지털과 원자력 분야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으며 나아가 군사 및 방산 협력까지 타진했다.⁵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미국을 최첨단 기술 분야의 파트너로 선호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 제안은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⁶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거래주의 기조로 걸프 산유국의 정치적 제약을 줄였고 이미 가깝던 트럼프 일가와 걸프 왕실 간의 개인적 친분은 양측의 경제 연계를 더 촉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2021년에 설립한 투자회사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초기 투자를 했는데 쿠슈너 보좌관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와의 친분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미국 LIV 골프 대회는 2022년 이래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2024년 7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은 리야드의 트럼프 타워, 제다의 주거용 타워 개발사들과 브랜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매개로 카타르와 UAE까지 이러한 협력이 확대됐다. 2025년 4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개발사와 함께 카타르의 리조트 개발 계약을 맺었고 같은 달 사우디아라비아·UAE 개발사와는 두바이의 호텔·타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5월에는 UAE 국영 AI 투자사가 트럼프 일가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⁷

결국 걸프 3국은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순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언했고 트럼프 정부는 첨단 무기 수출 확대와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이들 나라의 개혁 프로젝트를 도와 첨단 혁신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개혁 성공의 핵심 요건인 역내 불확실성 해소와 확고한 안보 보장에도 필수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친이란 무장단체인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비해 미 중부사령부 산하 통합 방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순방 기간 걸프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고 미국과 UAE는 기술 프레임워크 협정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개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고유가가

필요함에도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 여유 생산력을 활용해 추가 공급을 내놓는 유연성을 보였다.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를 넘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확실한 안보 보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읽힌다. 더구나 6월에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막강한 하드 파워를 과시해 여전히 중동 질서 재편의 주도자임을 확실히 하면서 이들 걸프 산유국의 트럼프 정부 밀착은 더 강고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걸프 순방의 핵심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전격적인 요청에 따라 아흐메드 알샤라(Ahmed al-Sharaa) 시리아 대통령과 회동한 뒤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역내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후 9월에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시리아를 방문해 알샤라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슬람주의 계열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Sham, HTS, 시리아해방기구)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우려해 드루즈·쿠르드 소수민족이 자치권을 갖는 연방제 도입을 지지하면서 미국에 시리아 제재 유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⁹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휴전 협상을 위한 회담지로 리야드를 택하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평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¹⁰

이란의 전략적 한계: '저항의 축' 궤멸, 엘리트의 패닉과 분열, 민심 이반

6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의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에 반발한 이란은 핵 활동 확대를 선언했다. 다음 날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미 핵분열 물질을 확보해 수일 내 최대 15기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며 이를 선제공격의 명분으로 삼아 공습을 단행했다. 이어 미국은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유엔헌

장 2조 4항을 위반한 불법적 침략 행위라며 자국의 어떠한 대응도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르도 핵시설은 지상부만 피해를 봤고 핵 원료는 이미 옮겨졌기에 핵 활동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미·반이스라엘 이데올로기를 체제 정통성의 핵심으로 삼는 이란의 강경파 정권으로서는 내부 결집을 위해서도 이처럼 체제의 견고함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결사 항전을 외쳤던 이란에 현실적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12일 전쟁' 기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군 핵심 인사 20여 명이 사망했고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돼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됐다. 더구나 프록시 조직 대부분이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어진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친이란 성향의 시리아 세습 정권도 갑작스레 붕괴한 상태였다. 여기에 이번 작전에서 모사드가 이란 내부 정보를 정밀하게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권 엘리트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이란 정권이 대이스라엘 보복전 계획에 몰두하는 사이 사회 전반에서는 불만과 분노가 고조됐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헤란 시민에게 대피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공 사이렌 발령이나 대피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더불어 당국은 내부 정보 유출 방지와 간첩 색출을 명분으로 인터넷을 차단하여 시민들이 의존할 수 있는 최후의 정보 획득 통로마저 차단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퍼졌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가스전 및 주요 정유시설을 공습한 후 심각한 전력난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동요가 심화했다.¹¹

그럼에도 이란은 보복을 공언한 이상 미국의 핵시설 타격에 대한 응징 제스처를 취한 뒤 전황을 소강 국면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카타르 정부에 사전 통보한 후, 카타르 주둔 미군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으나 의도적으로 큰 피해는 피했다. 문제는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 달리 오랫동안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란과 미국 사이의 중재 채널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카타르는 이란의 자국 영토 타격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되면 자국도 추가 대응을 자제하겠다고 확전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으나 이번 사태는

외교적 자산이던 카타르와의 관계에 균열을 남겼다.

미국의 직접 개입에 직면한 이란 지배 엘리트는 결국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통해 국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후 개혁 성향의 외교관들이 유럽과 걸프 산유국을 긴박하게 접촉하며 핵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했으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8월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스냅백(snapback, 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하고 9월 유엔안보리가 이란 제재 유예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면서 제재 복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 다수가 제거되고 하메네이 자신도 전쟁 발발 이후 3주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시민 보호라는 최소한의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한 정권의 무능과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포스트 하메네이 체제를 둘러싼 엘리트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이란이슬람공화국은 1979년 수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국제 제재가 실제로 복원될 경우 이란은 중국·러시아·북한과의 반미 연대에 더 의존하면서도 심화하는 내부 압박 속에서 정권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가며: 트럼프 2기 신중동 전략의 전망과 이스라엘 변수

트럼프 2기 정부의 걸프 밀착과 이란 군사공세 병행 전략은 이란과 시아파 진영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스라엘과 수니파 아랍 걸프 산유국이 주도하는 신중동 질서를 부상시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함께 미국 경제 우선주의 구호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국을 핵심 투자 파트너로 부각시키고 이들과의 AI 기술 및 안보 협력을 약속했다.

중동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던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소극적인 방관자로 전략한 것도 관전 포인트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우려하고 갈등 확산을 반대하는 조심스러운

보도자료를 내는 데 그치며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막강한 하드 파워를 바탕으로 중동 질서를 좌우하는 절대 강자로서의 미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¹² 2024년 초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항로 상선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자 중국은 후원국인 이란에 압박을 가하는 대신 러시아와 함께 자국 선박의 안전 통항 확보를 위해 후티 반군과 거래를 맺어 비난을 사기도 했다.¹³ 반면 미국은 영국, 캐나다, 바레인, 프랑스 등과 함께 다국적 해상안보 작전을 개시했고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드론 기지 30여 곳을 직접 타격하는 별도의 작전도 수행해 이 역시 대조를 이뤘다. 2025년 5월 미국은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걸프국에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수출 시장이자 외교 다변화의 유용한 파트너일 수 있지만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이 지니는 비교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졌다.

한편 9월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정상회의는 '텐진 선언'을 채택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규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위'에 맞서 다극적 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고 이란은 직접 공격을 받은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세 나라는 나아가 영국·프랑스·독일이 추진하는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 메커니즘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력 질주와 무리한 가자지구 재점령 계획은 이란의 군사 팽창주의가 전례 없이 약화되면서 형성된 새로운 지역 질서의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9월 이스라엘의 카타르 내 하마스 정치국 공습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 주도로 열린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의안이 찬성 142표로 통과되면서 트럼프 2기 중동 전략은 도전에 직면했다. 이번 결의안은 7월 아랍연맹이 채택한 '뉴욕선언'을 토대로 두 국가 해법을 재확인하고 휴전과 인도적 지원, 인질 석방과 하마스 통치 종식 등을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 국가들을 설득해 결의안 통과를 끌어내며 아랍·무슬림 세계의 구심점이자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 중재자로서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대내외 여론을 의식한 걸프국이 신질서 편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와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이스라엘 압박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서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합의는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공개 발언한 뒤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을 비공식 논의했다.¹⁴ 7월 스코틀랜드 방문 중에는 미국과 동맹국이 직접 구호 거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식량 제공을 압박했다. 8월에는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중동 특사를 이스라엘에 보내 휴전과 긴급 지원을 재차 촉구했으며 9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때는 카타르의 주권을 옹호했다.¹⁵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떤 미국 지도자보다 네타냐후 총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종전을 단호히 요구한다면 새로운 역내 안보구도가 정착될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전쟁 종식과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확대 그리고 걸프국의 재정 지원을 통한 가자지구 재건을 시급히 원한다. 실제로 UAE·바레인·모로코 등 아브라함 협정 체결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철회 대신 조용히 교류를 이어가며 주변 다른 나라도 이란과 저항의 축 약화로 얻은 역내 안정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 중부사령부의 통합 방위망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고조된 만큼 미국 주도의 휴전과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어야만 한 수니파 아랍국과 이스라엘 간 데탕트(Détente, 긴장 완화)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중동 전략을 걸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국내 정치라는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정부는 재편된 중동 질서의 안착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걸프 산유국과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신중동 안보 구도는 이란의 약화에 힘입어 점차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장지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이자 지역연구센터 센터장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2012-2018)을 지냈고 현재 산업부, 법무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 분야는 중동 정치경제, 정치 이슬람, 비교 민주주의와 독재, 극단주의 테러와 안보,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대표 저서로 중동정치를 비교분석한 «최소한의 중동 수업» (시공사 2023), 클레멘트 헨리(Clement Henry)와 공편한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Palgrave Macmillan 2013), 논문으로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정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전망” (아산이슈브리프 2022),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아산리포트 2018), “Disaggregated ISIS and the New Normal of Terrorism” (*Asan Issue Brief* 2016), “Islamic Funda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8)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파와즈 게르게스(Fawaz Gerges)의 «지하디스트의 여정» (아산정책연구원 2011)이 있다.

¹ Karen Freifeld and Arsheeya Bajwa. “Trump administration to rescind and replace Biden-era global AI chip export curbs.” *Reuters*. May 8, 2025; Aimee P. Ghosh, Austin Chegini, David McCullough, Craig J.

Saperstein, Steve D. Ryan, and Reza Zarghamee. “Trump launches one billion plus investment fast track executive order.” *Pillsbury Law*. April 4, 2025; Liza Lin, Amrith Ramkumar, and Corrie Driebusch. “U.S. to Overhaul Curbs on AI Chip Exports After Industry Backlash.” *The Wall Street Journal*. May 7, 2025.

² Samia Nakhoul and James Mackenzie. “Trump’s Gulf Tour Reshapes Middle East Diplomatic Map.” *Reuters*. May 19, 2025; H el ene Sallon. “Trump’s Gulf Outreach Sidelines Israel’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Le Monde*. May 23, 2025; Simon Tisdall. “Trump Thinks He Is Shaping the Middle East. Instead, It’s Gulf States That Will Dictate US Foreign Policy.” *The Guardian*. May 11, 2025.

³ “Saudi Arabia Changes Its Tune on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Gulf International Forum*. May 13, 2025; “Conflict in Yemen and the Red Sea, Global Conflic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ember 27, 2025.

⁴ “US Says Its Strikes Degraded Iran’s Nuclear Programme by One to Two Years.” *Al Jazeera*. July 3, 2025; Phil Stewart and Idrees Ali. “Iranian Nuclear Program Degraded by Up to Two Years, Pentagon Says.” *Reuters*. July 3, 2025.

⁵ Tye Graham and Peter W. Singer. "How China's Tech Giants Wired the Gulf." *Defense One*. May 13, 2025; Xinhua News Agency. "China, GCC Countries to Deepen Peaceful Nuclear Tech Cooperation." *Xinhua /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April 21, 2025.

⁶ Alexander Cornwell and Maha El Dahan. "UAE Set to Deepen AI Links with the United States After Past Curbs Over China." *Reuters*. May 15, 2025; Jonathan Fulton. "The Digital Silk Road in the Gulf: Navigating Risks Amid China-US Rivalry." *The Diplomat*. July 16, 2025.

⁷ "Qatari Diar Signs Strategic Agreement with Dar Global to Develop Trump International Golf Club & Villas – Simaisma." *PR Newswire*. April 30, 2025; Alexander Cornwell and Maha El Dahan. "Kushner's Affinity's Assets Jump to \$4.8 Billion After Gulf Cash Injection." *Reuters*. March 28, 2025; Marissa Garcia. "Report: Trump-owned Courses to Host PGA Tour, LIV Events in 2026." *Reuters*. August 7, 2025; Federico Maccioni. "Trump's stablecoin chosen for \$2 billion Abu Dhabi investment in Binance, co-founder says." *Reuters*. May 2, 2025.

⁸ Hadeel Al Sayegh et al. "US and UAE Finalise Technology Framework Agreement, Source Says." *Reuters*. May 15, 2025; Stephen Kalin and Summer Said. "Saudi Will Not Waste a Trump-Fuelled Oil Crisis." *Reuters*. April 9, 2025; Clayton Seigle. "With Extra Oil, Trump Already Has His Big Saudi Win." *Commenta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y 12, 2025.

⁹ Ahmed Asmar. "Trump Rejects Netanyahu's Request to Keep Syria Sanctions: Report." *AA News*. May 12, 2025.

¹⁰ Jarrett Renshaw. "Trump Hosts Qatari Prime Minister After Israeli Attack in Doha." *Reuters*. September 13, 2025.

¹¹ Parisa Hafezi. "Angry and Afraid, Iranians Brace for More Israeli Attacks." *Reuters*. June 13, 2025; Nasser Karimi. "Anger, Worry in Iran's Capital After Israeli Strikes." *AP News*. June 13, 2025; Yeganeh Torbati. "After Attacks on Iran, New Questions About Its Leader – and a Successor." *Washington Post*, June 27, 2025.

¹² Lily Kuo and Karen DeYoung. "China's Limited Role in Israel-Iran Tensions Highlights U.S. Dominance." *Washington Post*. June 24, 2025.

¹³ Brendan Cole, "Russia and China Reach Agreement with Houthis on Safe Passage in Red Sea." *Newsweek*. March 21, 2024; James Farrell. "Houthis Reportedly Strike Deal with Russia, China for Safe Passage." *Forbes*. March 21, 2024.

¹⁴ Julian Borger. "Donald Trump Says 'a Lot of People Are Starving' in Gaza and US Will Take Care of Situation." *The Guardian*. May 16, 2025; Matthew Lee. "Trump, Gulf Leaders Discuss Humanitarian Access to Gaza amid Famine Fears." *AP News*. May 15, 2025.

¹⁵ Maayan Lubell and Nidal Al-Mughrabi. "Trump's Envoy Meets Netanyahu for Gaza Aid, Ceasefire Push." *Reuters*. August 1, 2025; Andrew MacAskill and Andrea Shalal. "Trump Says Many Are Starving in Gaza, Vows to Set Up Food Centres." *Reuters*. July 28, 2025.